

국 제

“해적들, 한국 선원 인간방패 세워”

소말리아 피랍 마부노호 선원 174일만에 전원 석방
에멘으로 이동중...한국인 4명 포함 24명 모두 무사

지난 5월15일 소말리아 근해 하라데레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원양선 마부노 1,2호 석방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피랍 174일만인 4일 오후 5시(한국시간 밤 10시)에 에멘 아덴항으로 출발했다.

마부노호 선주 안현수 씨에 따르면 이날 석방된 마부노 1,2호는 8일 아덴항에 입항하게 된다. 마무리 석방 협상차 지난달 2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두바이로 옮긴 안 씨는 한국인을 포함한 선원 24명을 인도하기 위해 6일 아덴으로 떠날 예정이다.

정부는 마부노 1, 2호의 선원 24명의 석방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선원들이 탑승한 마부노 1,2호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이던 미 5함대 소속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목격지인 에멘의 아덴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인 4명, 중국인 10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 인도인 3명 등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선원들에게 현재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선원들이 아덴항에 도착하면 정부는 선원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이 귀국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제 해적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는 이런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마부노호 선원 석방을 위한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소말리아 과도정부에도 사

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부노 1,2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은 사실상 석방합의가 된 3일 오후 12시45분께(두바이 현지시각)부터 석방이 공식화된 4일 오후까지 만 하루동안 한국 선원을 ‘인간방패’로 삼으며 석방 마지막까지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부노호 선주 안씨는 “사실 3일 오후 1시께 석방합의가 됐고 인근에서 (지난달 28일) 납치된 일본배에서 연료 등을 마부노호로 가져왔는데 미군 군함이 공격을 해와 마부노호가 움직이지 못했다”며 “해적들이 한국인 선원을 방패막이로 세워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적을 공격한 미군은 납치된 일본 선박 때문에 주위를 포위했던 병력인데 마부노호로 연료를 싣고오는 조그만 해적의 배를 공



격하다 마부노호에도 10여발 맞았다고 이 파편을 한석호 선장이 머리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안씨는 말했다.
그는 “땀방에 미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국인 선원을 선상에 집합해놓고 손을 들게 했다”며 해적들을 원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마부노호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다 174일만에 풀려나자 선원 가족들이 국민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 변호사들 전국서 항의 시위

당국 무력진압...수백명 체포 구금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임시헌법 발동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의 시위가 5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무샤라프의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무력진압에 맞섰으나 시위 도중 수십 명이 다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체포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판자부주(州) 주도인 라호르에서는 2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고등법원 앞에 모여 무샤라프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들은 거리행진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내보낸 뒤 곧바로 최루가스과 근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다.

AP통신은 이날 라호르에서 250여 명의 변호사들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 변호사들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원로 변호사인 사르프라즈 차마는 “변호사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우리는 절대 비상사태 선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카라치 고등법원 판사인 라시드 라즈비는 “파키스탄 역사상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체포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부 항구도시인 카라치에서도 법원 진입을 시도하던 변호사들과 취재진이 경찰과 충돌했다.

남부 항구도시인 카라치에서도 법원 진입을 시도하던 변호사들과 취재진이 경찰과 충돌했다.

또 이슬라마바드 인근의 군사도시인 라왈핀디 법원에서 5~6명의 변호사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한편 사우카트 아지즈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3일 이후 400~500명을 예방구금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美 대선 1년 앞으로

선거주요 이슈

이란 핵개발·韓-美 FTA 등 쟁점 부상

미국 대선은 정책 선거다. 후보의 인물 필름이나 인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이 당락을 가른다. 네거티브를 비롯한 온갖 선거 전술도 동원되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표 향방을 가르는 건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전, 이란, 대테러정책=이라크 전쟁은 이 시대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5년이 다되도록 술한 미군의 인명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승리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에 부정적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대통령이면 즉각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진 전력을 해명하라는 곳마다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확실하게 승리할 때까지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이라크전 찬성표 힐러리, 해명에 진땀

최근엔 이라크 전쟁보다 오히려 이란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막아야 하는냐가 논란거리다.

민주당 후보들은 외교노력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력 옵션에 배제하지 않는다길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 역시 외교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사력을 써서라도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금, 재정적자, 통상, 환경정책=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가 경제분야의 최대 쟁점이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를 이어받아 감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부시 감세정책에 반대하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공평 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 크게 불어난 재정 및 무역적자를 어떻게 줄일지도 이슈다. 대중 무역적자와 한미 FTA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보다 비판적이고 강경한 편이다.



한경문제는 석유가 급등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핵심 대선 이슈가 됐다. 힐러리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환경문제에 더욱 적극적이다.

고갈위기 연·기금 운용도 논란의 초점

△이민,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양당 후보들은 대부분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 경비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기존 법을 집행 강화에도 대부분 찬성이다.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과 처벌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책이 팽팽하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고갈위기에 놓인 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특히 기금운용을 민간부문에 위탁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으로 후보들의 입장이 갈라져 있다. 낙태와 동성애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사회의 본질을 반영하는 민감한 이슈들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핵 불능화팀 페연료봉 인출 임박

다산·동의부대 내달 중순 완전 철군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지난 1일 방북한 미국 핵기술자팀이 조만간 영변 5MW 원자로 안에 있는 페연료봉 인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6차 수석대표들이 최근 합의 및 추진한 영변 3대 핵시설의 11개 불능화 조치에는 5MW 원자로 노심 안의 페연료봉 8천여개를 인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중량 50t에 달하는 페연료봉 8천여개를 인출하는데는 6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내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를 마친다는 ‘10:3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면 조만간 연료봉 인출에 착수해야 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불능화 이행팀은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인출하는 동시에 다른 2개 불능화 핵심 시설인 방사화확산실과 핵연료봉제조공장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 이행팀은 신고·불능화 이후 최종 핵폐기 단계 협상을 통해 페연료봉 처분 방식이 결정될때까지 일단 페연료봉을 수조에 보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예정돼 있는 아프가니스탄 동부·다산 부대가 오는 12월 10~15일 완전 철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5일 “동·다산부대 장병들이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전 철군시기는 다음달 10~15일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다산부대에 대해 오는 12월 말 철수하라는 지령을 이미 하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다산부대는 이에 따라 철군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항기 등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프간에는 의료부대인 동의부대 11진과 공병부대인 다산부대 9진 등 208명의 장병이 파병돼 있다.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대대적인 테러세력 소탕을 위해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인 2002년 9월 국군의로지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에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각각 파병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Includes hospital names like 광주 현대병원, 광주 한국병원, and various medical specialties.